

---

# D. H. Lawrence의 Sleeping Beauty Theme에 대한 研究( I )

梁 永 洙\*

## I. 머리말

D. H. Lawrence 연구의 대가인 Harry T. Moore에 의하면 D. H. Lawrence의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주요한 motif에 Sleeping Beauty Theme이라는 것이 있다.<sup>1)</sup> 이지적이고 교양있는 상층민 여자 주인공의 잠자던 性本能(upper-class sterility)이 비천하지만 열정적인 남자 주인공(male vitality)에 의해 촉발되는 계기를 얻는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motif는 D. H. Lawrence의 생애와 문학의 특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우선 그의 가정 배경을 살펴보면, 그의 어머니 Lydia는 전직 교사로서 교양있고 신앙심 두터운 중산층 출신인데 비해 그의 아버지 Arthur Lawrence는 비천한 광부였다 술주정꾼이지만, Lydia는 오히려 Arthur의 활달하고 호방한 남성매력에 매료되어 연애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지적인 여성이 粗野한 남성에게 이끌려 이루어지는 이 같은 남녀결합의 모델은 D. H. Lawrence의 자서전적인 소설 *Sons and Lovers*속의 Morel 부부 사이에서도 충실하게 옮겨지고 있다. D. H. Lawrence 자신의 경우를 보면, 사범대학 출신으로 금세기 최고의 지성에 도달한 소설가이면서도, 문화적인 세련미보다는 문명화 이전의 자연상태를 동경하는 그의 문학의 自然回歸主義의인 특성은 어디까지나 그의 성장배경인 비천한 노동자 계층과 광산촌 생활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고, 그의 기질적인 야성미에 매력을 느낀 독일 귀족 출신의 요조

---

\* 師範大學 助教授

1) Sandra Gilbert. *D. H. Lawrence's Sons and Lovers: Monarch Notes* (New York: Monarch Press, 1965), p. 17

숙녀 Frieda가 첫 남편 Weekley 교수와의 상류 가정생활에 반발을 일으킴으로써 이들 두 남녀의 열렬한 애정편력이 시작되었음을 생각할 때, 이 작가 자신의 애정생활도 그의 문학속의 Sleeping Beauty Theme과 일치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 H. Lawrence의 가정배경과 애정생활에서 구현되었던 이 같은 Sleeping Beauty Theme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 보기로 하자. 그의 초기 단편인 "Daughters of the Vicar"에서는 광부의 아들 Alfred Durant가 목사의 딸 Louisa Lindley로 하여금 종교적 의무감의 속박에 반발하고 진정한 사랑에 눈뜨이도록 하는 계기를 이루어 주고 있고, 단편 "You Touched Me"에서는 비천하고 무지한 남자 주인공 Hadrian의 당돌하고 直情的인 請婚이 명문 집안임을 뽐내면서 몸을 사리던 여자 주인공 Matilda의 同意를 얻어내고 있다. 또한, "The White Stocking", "The Blind Man", "Fanny and Annie", "Jimmy and the Desperate Woman", "Sun"과 같은 단편들에 있어서도 다정다감한 여자 주인공의 애정욕구를 채워주는 진정한 반려자는 이지적이고 高踏的인 남자가 아니라, 知性보다는 단순소박한 自然本능대로 살아가는 열정적인 남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편소설 "The Virgin and the Gipsy"에서는 종교적인 규율과 家門意識에 사로잡힌 목사관 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처녀 Yvette가 비천한 방랑자인 집시 남자에게서 자유로운 인간성 해방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고, 중편 "Princess"에서는 귀족적이고 폐쇄적인 아버지 밑에서 젊은 시절의 발랄한 욕구를 억압당해온 노처녀가 혈기왕성한 미남 청년인 농원 案內人 Rmero와의 록키 산맥 여행에서 충격적인(끝내 실현되지는 않지만) 자기탈피의 기회를 만나고 있다. 그의 장편소설로 눈을 돌려 본다면, *The White Peacock*에서는 동물적 본능대로 살아가는 산지기 Annable이 백공작이라 불리울 만큼 허영심 강하고 귀족적인 아내 Crystalbel의 감정을 꼬집고 있고, *The Rainbow*에서는 소박한 농부인 Tom Brangwen이 의사의 과부로서 지식인 계층인 폴란드 여자 Lydia Lensky의 시들어 가던 애정욕구를 뒤늦게 채워주고 있으며, 그의 마지막 장편 *Lady Chatterley's Lovers*에서는 부유한 귀족 남편 Clifford와의 정신적인 가정생활에 심한 저항감을 느끼던 여자 주인공 Connie가 교양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어던진 야성적인 산지기 Mellors와의 열정적인 性愛에서 진정한 남녀 사랑의 의미를 체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문명과 교양이라는 미명 아래 원초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적 지식인들에 대한 Lawrence의 비판을 사상적으로 대변하는 소설 주인공들이 이와 같이 비천한 신분의 남성으로 나타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대표적 역작으로 지적되는 *Women in Love*의 주인공 Birkin은 Lawrence의 가장 충실한 分身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면서도, 중산층적인 폭넓은 지성과 생명주의적인 건강한 감수성을 겸비한 남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Lawrence 소설속의 애정 패턴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앞서 열거한 작품에서 보는 바 열정적인 下層民 男子 對 理知的인 上層民 사이의 남녀 결합을 작가의 생애에 대한 自叙傳的인 再現(autobiographical representation)이라고 보고, Ursula-Birkin couple의 예에서 보는 바 지성 및 감수성을 겸비한 남녀결합의 경우를 작가의 생애에 대한 예술적 혹은 욕구충족적인 再構成(artistic or self-fulfilling reconstruction)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광부 아들로서의 Lawrence 자신의 생활 배경에서부터, 증상류 계층의 허영심과 권위의식이 인간성의 자연을 왜곡시키기 쉽다는 前者 類型의 편협된 작품세계가 가능해졌고, 이 같은 편협성이 작가적인 경험의 심화에 의해 수정된 것이 後者 類型의 절충적인 작품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II. "Odor of Chrysanthemums"에 의한 Sleeping Beauty Theme의 완성

*Sons and Lovers*는 Lawrence 문학의 주요 쟁점들을 배태시킨 이 작가 최초의 문체작인데 이 장편 속에서 그의 모친役に 해당하는 理知的인 여성 Gertrude Morel이 그의 부친역인 Walter의 열정적인 남성매력에 이끌려 결혼한다는 내용이 *Sleeping Beauty Theme*에 부합된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이다. 그러나 淸教徒的인 Gertrude가 방종한 남편과의 비참한 부부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남편에게 향했던 애정을 아들에게 쏟게 되면서부터는 이 같은 애정 패턴에서 이탈되어 나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Sons and Lovers* 속에서 종교적인 이상주의자 Gertrude의 남편 냉대가 거의 아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은 이 작가의 문학적 인간관이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었고, 이 장편을 쓸 때까지도 그는 모친에 대한 정서적인 예속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관계로 그녀에 대한 맹목적인 존경 이외의 태도를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Lawrence는 25세 되던 해에 모친의 죽음을 당하고 (1910.12)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연상의 유부녀와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이고 그녀의 도움 아래 *Sons and Lovers*를 완성하고 하는 사이에 양친의 인간성에 대한 과거의 몰이해에 눈뜨이게 됨으로써 이 장편에 투영되었던 자신의 인간관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Sons and Lovers*의 의지적인 여주인공 Gertrude가 자기도취적인 (self-contained, self-complacent) 자신의 생활태도에 대해 아무런 회의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비해, 이 장편보다 2년 후(1914)에 그 최종판이 나온 단편 "Odor of Chrysanthemums"속에서 거의 같은 성격으로 나오는 여주인공이 광부 남편의 事故死를 당하고서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작가가 그 동안 얻은 성숙된 인간 이해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ons and Lovers*속에서는 지적 오만에 차있는 아내가 자유로운 生命力的 化身으로서의 남편에게 애정의 통로를 차단시킴으로써 *Sleeping Beauty Theme*이 미완성인 채로 남겨져 있었지만, 이 장편의 속편이라 할 "Odor of Chrysanthemums"에 와서는 비록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이기는 하나, 아내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지적 오만의 성이 무너짐으로써 前篇에서 未完成이던 *Sleeping Beauty Theme*이 완성되는 계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들 두 작품에 나타난 同一主題의 상이한 전개과정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Lawrence적인 인간관과 애정관의 보다 충실한 이해에 보탬이 되고

자 한다.

*Sons and Lovers* 가운데에서 남편에 대한 Gertrude의 모멸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그가 광산 사고에서 다쳤을 때 나타나고 있다. 즉 조심성이 없는 남편이 안전사고를 유별나게 많이 당하여 아내인 자신에게 성가신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아들 Paul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다.

'Good gracious me!' She exclaimed. 'Eh, dear, what a one he is! There's not five minutes of peace, I'll be hanged if there is.—what a careless creature he is! Other men don't have all these accidents. Yes, he would want to put all the burden on me. Eh, dear, just as we were getting easy at last.—<sup>2)</sup>

또한, 입원중의 남편을 간호하다 돌아온 Gertrude의 심정을 묘사한 다음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녀는 남편의 불행에 대해 슬퍼하기는 하지만 그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아파하거나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하고자하는 새로운 애정은 싹트지 않았으며, 남편의 불행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심정이 괴로운 공허감을 더해 줄 뿐이었다.

She was grieved, and bitterly sorry for the man who was hurt so much. But still, in her heart of hearts, where love should have burned, there was a blank. Now, when all her woman's pity was roused to its full extent, when she would have slaved herself to death to nurse him and to save him,— she felt indifferent to him and to his suffering. It hurt her most of all, this failure to love him, even when he roused her strong emotions. (p. 86)

그런데, Walter Morel은 무식하고 방탕하지만 남한테 구속받기 싫어하고 활기있고 충동적이며 사회적 신분의 향상에 별로 관심이 없는 自我(selfhood) 志向的인 사람인데 비하여, Gertrude Morel은 意志的이고 禁慾的이며 자신이 못다 이룬 사회적 지위 향상의 욕구를 아들들의 미래상속에다 투사시킨 所有權(possessorship) 志向的인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Lawrence 문학이 추구했던 自然回歸主義的인 生命力 具現은 Paul 모친보다는 부친쪽의 생활태도와 더욱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적인 主知主義는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手段化시키고, 他人의 他者性(othersness)을 부정하며 삶을 규범화·이념화(rationalize·idealize) 함으로써 개인이 갖는 자유로운 창의력과 독자적인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Lawrence적인 문명 비판의 핵심 내용인 것이다. Law-

2) D.H.Lawrence, *Sons and Lovers; Text, Background, and Criticism*. ed. by J. Moynaha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9), pp. 83-4.

\* 아래에서 이 작품에서의 인용은 이 책의 의한 것임.

rence 자신도 후일에 가서는 부친의 자유분방한 생활태도가 *Sons and Lovers*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음을 고백했거니와<sup>3)</sup>, 청교도적인 순결성을 앞세우는 가운데 지적인 오만과 자기도취에 빠져 있으면서 남편을 능멸하는 여주인공 Mrs Morel이 이 장편속에서는 오히려 미화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성숙되지 못한 Lawrence 문학의 맥락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D.V.Ghent에 따르면, Paul의 부친은 동물적인 자연본성의 리듬을 준수한 사람이고, 모친은 남편과 아들들에 대한 부당한 소유욕과 지배욕 때문에 그것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Walter에게 있어서는 삶이란 것이 人間 以上の 生物 現象 전체 또는 우주 전체의 자연적 질서에 正直하게 따르는 것이며, 반면에 사회관습이나 타인들의 평가 기준에서 意識的 準據의 틀을 찾는 Mrs Morel이나 그 아들들의 삶은 他者 志向的인 것, 그리하여 자기의 內面的인 動物的 欲求를 왜곡시키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n *Sons and Lovers*, only in Morel himself, brutalized and spiritually maimed as he is, does the germ of selfhood remain intact; and—in him only does the biological life force have simple, unequivocal assertion. Morel wants to live, by hook or crook, while his sons want to die. To live is to obey a rhythm involving more than conscious attitude and involving more than human beliefs— involving all nature; a rhythm indifferent to the greediness of reason, indifferent to idiosyncrasies of culture and idealism.<sup>4)</sup>

—this offense against life has been brought about by a failure to respect the complete and terminal individuality of persons— by a twisted desire to 'possess' other persons, as the mother tries to 'possess' her husband, then her sons. <sup>5)</sup>

"Odor of Chrysanthemums"의 여주인공 Elizabeth Bates는 *Sons and Lovers*의 Mrs Morel과 거의 비슷한 가정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두 작품의 방탕한 남편 이름은 모두 Walter이다.), *Sons*에서는 그 대체적인 토운에 있어서 고결하고 정숙한 부인이 피해자이고 술주정꾼 남편이 가해자인데 비해, "Odor"에서는 道德家然하면서 非情어린 부인이 가해자이고, 순박하고 다정다감한 남편이 피해자로 느껴진다는 점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 이에 대한 P.Hobsbaum의 견해를 들어보자.

3) Keith Cushman, *D.H.Laurence at Work: Emergence of the Prussian Officer Stories* (Charlottesville, Virginia: The Univ. Press of Virginia, 1978), pp. 64, 67.

H.T.Moore, *The Life and Works of D.H.Laurence* (London: George Allen & Ltd., 1951), pp. 23, 26, 96.

4) C.V.Ghent, *The English Novel: Form and Function* (New York: Harper & Row, 1961) p. 252.

5) *Ibid.* p. 247.

...in *Sons and Lovers* there is a woman who feels injured, a husband ... condemned for his drunkenness. In the story, more than in the novel, the man is rehabilitated.<sup>6)</sup>

단편 "Odor"의 첫 부분에서는 그러나 *Sons*의 오만한 Mrs Morel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여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다. 즉, 이 단편속의 Elizabeth Bates도 Mrs Morel처럼 의지력이 강하고 삶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은 관계로, 사회의 낙오자인 남편 대신에 자녀들 양육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있었고, 탄광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자 저녁 식사를 차려 놓고 하릴없이 기다리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남편에 대한 노골적인 분노의 감정을 터뜨린다. 밤이 늦어지면서 남편에 대한 그녀의 분노가 그의 신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고 피가 잿아드는 초조감을 느끼지만, 남편의 불행을 예감하고 있던 그녀가 그의 안전사고에 대한 시어머니의 암시를 듣고서 대뜸 "Is he dead?"라고 다그쳐 묻는 어조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나 염려의 발로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녀 자신도 자기 질문에 담긴 지나치게 불길한 상상이 남편에 대한 자기의 배신처럼 느껴져서 머쓱해지고 있는 것이다.

'Poor child! Eh, your poor thing!' she [the grandmother]moaned. 'I don't know what we were going to do, I don't -and you as we are -it's a thing, it is indeed!' Elizabeth waited.

'Is he dead' she asked, and at the words her heart swung violently, though she felt a slight flush of shame at the ultimate extravagance of the question. Her words sufficiently frightened the old lady--.

'Don't say so, Elizabeth! We'll hope it's not as bad as that--.'<sup>7)</sup>

남편이 늦어지는 것이 술집에 들렀기 때문이 아니라 탄광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될 때에도 이 옹골찬 여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못다한 부부 사랑에 대한 뉘우침이나 미련 같은 것 보다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자신이 받게 될 연금과 생계비 문제라든가 남편이 죽지 않고 부상만 입었을 경우라면 자신이 떠 말아야 할 성가신 병원 뒷바라지 등 극히 비정스러운 생각들이

6) Philip Hobsbaum, *A Reader's Guide to D.H.Lawrence*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81), p. 27

\*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견해는 다음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G.Salgade. *A Preface to Lawrence* (New York: Longman Inc., 1982), p. 129.

M.B.Black. *The Early Fiction*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6), p. 188.

7) D.H.Lawrence, *Selected Short Stories*, 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Brian Finney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82), p. 98.

\* 아래에서 이 작품에서의 인용표시는 이 책에 의한 것임.

었다. 이 작품 서두의 중요한 분위기 묘사를 이루는 것으로서, 독신 생활을 하는 친정 아버지의 외로움에 대해 남의 일 보듯 덩덤하게 반응하는 그녀의 태도는 그녀가 부부 사랑에 대해 부여하는 척박한 의미를 짐작케 한다. 또한, 잠자던 아이들이 깨어나서 집안의 불행을 검색 채리려고 했을 때 그녀가 남편의 죽음을 애써 숨기면서, 父子間 인류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을 차단시키고 있는 사실은, 지나친 소유욕으로써 자식들을 독점하려는 그녀의 독선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Elizabeth에게 있어서 愛情不在의 자기인식은 마침내 처절한 고독감과 쓰디쓴 수치감을 통하여 인간존재의 깊은 의미에 도달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그녀가 동료 광부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온 남편의 시체를 염습하면서 거듭 다짐하는 것은 자신과 남편을 운명적으로 갈라 놓고 있는 철벽같은 격리감의 확인이었다. 남편의 시신 앞에서 확인하게 된 그 단절감은 이제까지 남편과 살을 섞으면서 나누었던 하찮은 부부의 편린들을 수치감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정도로 絶大한 것이었고, 그것은 또한 너무나 처절하고 진지한 단절감이어서 원천적인 인간 고독이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삶의 조건처럼 생각되게 할 정도이다. 다음의 서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녀는 인간관계의 근원적인 낯설음에 눈뜨이면서 남편의 사망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수치감을 위무하고 있는데, 사랑에 배신당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고독감과는 달리 어쩌면 자기 변명적인 합리화 사설처럼 들리기도 하나, 말의 의미를 넓게 잡아 볼 때에, 인간존재의 실체로서의 절대적인 고독을 직관케 해주는 감동적인 서술이라 생각된다.

Elizabeth looked up. The man's mouth was fallen back, slightly open under the cover of the moustache.— Life with its smoky burning gone from him, had left him apart and utterly alien to her. And she knew what a stranger he was to her.— Was this what it all meant— utter, intact separateness, obscured by heat of living? In dread she turned her face away. The fact was too deadly. There had been nothing between them, and yet they had come together, exchanging their nakedness repeatedly. Each time he had taken her, they had been two isolated beings, far as apart as now.— she knew she had never seen him, he had never seen her, they had met in the dark and had fought in the dark, not knowing whom they met nor whom they fought.— She had said he was something he was not, she had felt familiar with him. Whereas he was apart all the while, living as she never lived, feelings as she never felt. (p. 104)

숨을 거둔 남편은 그녀에게는 전혀 낯설게 보이며, 부부간의 근원적인 단절성은 덧없는 삶의 열기로 인하여 한 때 흐려졌을 따름이고, 과거에 이 남자와 서로 알고 지냈다고 여긴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다고 느낀다는 이 장면은, 절대적인 인간고독의 으스스한 심연을 들여다 보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他人의 他者임을 자각하는 이제 와서 비로소 그녀의 남편에 대한 인식의 차원이 달라지게 된다. 이제까지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남편의 존재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존엄성을 인정해야 할 보편적인 의미의 주체로 보이고, 그리하여 허리를 굽혀 말없는

남편의 시체를 포옹하는 그녀의 손길은 이 남자와 자신의 두 존재를 맺어 줄 結緣의 끈을 더듬는 것 같았고,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로부터의 무슨 감응을 바라듯이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살아 생전에 이미 끊겼던 그들 사이의 情分인지라 남편의 시체에 닿는 그녀의 손은 저도 몰래 허겁스러웠고, 두 사람 사이의 단절감을 더욱 아프게 할 따름이었다.

When they arose, saw him lying in the naive dignity of death, the women stood arrested in fear and respect.--- Elizabeth felt countermanded. She saw him, how utterly inviolable he lay in himself. She had nothing to do with him. She could not accept it. Stooping, she laid her hand on him in claim.--- Elizabeth embraced the body of her husband, with cheek and lips. She seemed to be listening, inquiring, trying to get some connection. But she could not. She was driven away. He was impregnable. (p. 103)

그런데, Elizabeth가 궁극적인 歸依處 (ultimate master)인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수치감을 느끼는 반면에 임시적인 寄着地 (immediate master)인 삶에 대해서는 承服한다는 이 작품의 끝맺음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삶이란 自己 中心의 自意識的 利害打算의인데 비하여, 죽음은 자기희생적 무의식적 화평적인 상태인데, 그녀는 아이들에게로 확산되어 가는 자신의 삶에 집착함으로써 남편의 죽음 앞에서 부끄러워 하게 된다는 것이 작가의 의도인 듯하다.

--- She was almost ashamed to handle him; what right had she or anyone to lay hands on him; but her touch was humble on his body.--- They covered him with a sheet and left him lying, with his face bound. And she fastened the door of the little parlour, lest the children should see what was lying there. Then, with peace sunk heavy on her heart, she went about making tidy the kitchen. She knew she submitted to life, which was her immediate master. But from death, her ultimate master, she winced with fear and shame. (p.105)

Lawrence에게 있어서는 無意識·直觀·本能 등의 暗黑(즉 죽음)세계가 意識·理性·意志 등의 光明(즉 삶)세계보다도 더욱 근원적인 자연상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삶의 세계에만 종속되어 남편을 자기의 논리대로만 해석하는 Elizabeth가 대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자신에게 수치감을 느낀다는 것은 공감이 간다 할 것이다. R.E.Pritchard도, Elizabeth와 그녀의 남편을 光明·所有·理性·죽은 삶(dead life) 및 暗黑·觀照(reverence)·直觀·살아있는 죽음(living death)의 代理者라고 지적하면서, 이 여자는 意識에 의해 구명되지 않는 더욱 심층적이고 超個人的인 (impersonal) 實在가 表層的이고 개인적인 삶의 밑바닥에 놓여 있음을 몰랐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the woman realizes how she had denied her man, through thinking that consciousness the only reality, and how he had been in life, as now in death, unknown and unknowable---



Beneath the surface of living individuality and action is the dark body of life, the impersonal true being, the non-human unliving source of life, where death and life are not opposite but are one.<sup>8)</sup>

B. Finny에 의하면 이 단편속의 광부는 아내의 지나친 자기애에 대한 자기방어(a form of self-protection)로서 타락해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sup>9)</sup> 이 광부가 미혼 시절에 성질 좋은 사람이었다는(a good lad, a happy lad at home, only full of spirits, p. 199) 그의 모친의 말이나, 시체로 돌아온 그의 모습에서 무뢰한의 흉칙한 인상보다는 아름답고 늙름한 남성을 느낄 수 있다는 서술(a man of handsome body, no traces of drink, full-fleshed with fine limbs, p. 103)들은 남편 타락에 있어서의 Elizabeth의 책임에 대해 공감케 해 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적 오만과 애정 결핍을 특징으로 하는 여자 주인공 즉 Sleeping Beauty의 자足的인(self-contained) 삶이 자연 본능의 구형체로서의 남자 주인공에 의해 충격적인 자기 탈피를 한다는 Sleeping Beauty Theme의 관점에서 이 단편을 해석해 보려는 것이 본 논고의 주된 의도였다. 남편의 생명적 욕구에 무감각했던 아내는 결국 자기 남편에 의해 (비록 그의 죽음을 통해서이지만) 삶의 진실을 터득했다는 데에 주목하자는 말이다. (She was grateful to death, which restored the truth, p. 104). 그런데, Elizabeth가 남편의 죽음앞에서 깨달은 인간적 고독의 의미는 Lawrence적인 이상적 사랑과 자유로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요건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Lawrence는 *The Rainbow*의 Tom-Lydia couple 및 *Women in Love*의 Ursula-Birkin couple을 통해서, 남녀간의 자기實現的인(self-fulfilling) 사랑이란 자기 주장을 멈추지 않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간에 의존적인(independent, but committed to each other) 관계임을 그려 보이고 있다. 상호간에 대립과 투쟁이 있어야 진정한 남녀간 애정이 성립된다는 Lawrence의 주장은, 사자와 一角獸에 의해 떠받쳐지는 왕관의 모형처럼 자아상실이 아닌 자기주장의 태도가 참다운 애정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자기주장의 한 형태가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양식으로서의 고독 지향성과 단절성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보아진다. B. Russell은 인간의 群居 指向性을 현실적응의 자기이익 추구하고 도덕교육의 결과라고 하는 반면에, 인간의 고독지향성을 본능적인 인간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고독지향적인 본능을 예술적으로 추구하는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자로서 Lawrence를 꼽고 있다.<sup>10)</sup> 또한 G. H. Ford는, 親交와 孤立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兩極적인 충동이 Lawrence소설의 근원적인 주제라고 말하고 있다.

8) R.E.Pritchard, D.H.Lawrence: *Body of Darkness* (Univ. of Pittsburgh Press, 1971) pp. 63-4.

9) D.H.Lawrence, *Selected Short Stories* ed. by B. Finny, op. cit., p. 14.

10) B.Russell,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London: George Allen Unwin, 1961), pp. 657-7.

The 'double measure' that George Ford finds in Lawrence—his impulse toward communion, his impulse toward isolation—has its roots in the fiction from the beginning, but it comes to fruition only with Frieda. Many of the characteristic Lawrentian beliefs crystallize in the late revisions of the *Prussian Officer* stories and in the writhing of *The Rainbow*.<sup>11)</sup>

"Odor"의 여주인공은 위와 같은 창조적 애정의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상호의존성 부분을 남편에 대한 지배와 소유로 잘못 발전시켰으나 그에 따른 애정 파탄과 뜻밖의 남편 사망에 직면함으로써 마침내 진정한 애정 조건의 또 다른 부분인 개인의 독립자존성 즉 고독한 인간 운명의 자각을 얻어 낸 셈인데, 우리는 그녀의 이 같은 자각을 성숙된 애정관을 위한 중대한 자기혁신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Gilbert의 지적대로, *Sons*의 Mrs Morel도 그녀의 유아독존적인 정신주의로 인하여 활달하던 남편의 생활의욕을 저상시키고 그를 타락시켰다는 독자의 의분을 자아낸다는<sup>12)</sup> 점에서 "Odor"의 여주인공과 유사한 성격의 인물이지만, 前者의 경우는 편협된 자기세계의 한계를 끝까지 자각하지 못하고 合理나 道德 以前の 자연 본성에 충실한 남편의 존재의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비하여, 孤高하던 여자의 무딘 감수성이 동물적인 남자와의 감정적 충돌에 의해 충격적인 자기탈피를 하게 되는 後者의 경우는 Sleeping Beauty Theme의 구현으로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작품에 있어서는 Lawrence의 前述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이 Theme의 완성, 즉 하층민 남성의 성적 매력에 의한 상층민 여성의 애정욕구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운명적인 인간고독과 단절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나고 있다. 다만, *Sons*에서 오만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여자가 여기에 와서는 독선적인 자신의 애정관의 허무함을 깨닫고 나아가서 (방탕한 남자까지 포함하는) 모든 인간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인정해야 할 독자적인 존엄성을 발견함으로써 이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애정관계의 기본 요건을 준비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Sleeping Beauty Theme을 구현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이 작가가 그 후에 발표한 수 많은 Sleeping Beauty Story들의 출현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 단편의 題名에 나오는 국화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화는 世間的 꽃말로는 평화나 절개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이 작품 속에서는 광부 Walter가 대표하는 <자연>을 의미하고,<sup>13)</sup> 의지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Elizabeth Bates와 국화 사이의 갈등관계를 통하여 <自然 破壞>의 주제가 전개되고 있다. 이 작품 중에서 맨 처음으로 Elizabeth와 국화의 관계가 이루어지

11) K. Cushman. op. cit., p. 75.

12) S.Gilbert, op. cit., pp. 69-70.

13) P. Hobsbaum, op. cit., p. 27.

는 곳은, 그녀가 커가 시간이 늦어지는 남편을 마중나왔다가 깨울가에서 아들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녀는 아들이 걸가의 국화를 꺾는 것을 말리면서 국화 가지 하나를 집에까지 갖고 와서는 앞치마 끝에다 끼워둔다. (p. 89). 이 사건은, 문명의 징표로서의 Elizabeth 및 앞치마와 자연의 징표로서의 Walter 및 국화송이가 결합됨을 의미하고, 아직 이 단계에 있어서는 Elizabeth가 남편과의 共存을 시도하고 있다. 국화가 나오는 다음 장면은 커가가 늦어지는 남편에게 성화를 터뜨리던 Elizabeth가, 앞치마에 끼워 둔 국화의 향기를 맡고 싶다는 아이들을 제쳐버리면서 성가신 듯이 국화송이를 떼어버릴 때인데 (p. 93), 국화꽃에 대한 이 여자의 태도 변화는 그녀가 종내는 남편을 버리게 되는 결말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다. Elizabeth는 또한, 국화에 대한 자신의 기억은, 결혼식 때, 아이들 출생시, 남편이 만취되어 처음으로 동료들에게 업혀왔을 때 등 방종한 남편과의 결연관계를 인상케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녀의 마음 속에 벌써 남편에 대한 離反의 마음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국화가 등장하는 장면은 Walter의 시체가 짐으로 운반될 때에 Elizabeth가 꽃병에 꽂힌 국화의 <싸늘한 죽음의 냄새> (a cold, deathly smell)를 역겨워 할 때인데 (p. 100), 국화꽃에 대한 그녀의 거부반응은 곧 남편에 대한 거부 심리를 말해주고 있고, 국화의 deathly smell은 곧 Walter의 deathly smell을 예감케 한다 하겠다. 그런데, 이 국화 꽃병은, Walter의 시체를 들고 들어오던 동료 광부들의 발길에 채여 넘어지고, 깨어진 꽃병을 치우는 일은 남편의 시체를 쳐다보지 않으려는 Elizabeth에게 때마침 좋은 방패막이 일거리가 되어 주는데 (p. 101), 국화 꽃병이 깨어지는 사건은 자연송배자 Walter의 죽음에 대해 가장 잘 어울리는 배경 효과를 이루어 준다 하겠다. 자연과괴자 Elizabeth는 결국 망가진 국화송이 신체처럼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된 셈인데 이러한 주제 전개 과정을 요약하면 <Elizabeth에 의한 본능 억압 → 부부간의 애정 상실 및 Walter의 죽음 → 국화송이의 망가짐 → Elizabeth의 수치감>으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Ⅲ. "The Shade of Spring"에 의한 Sleeping Beauty Theme의 완성

*Sons*에 나오는 또 하나의 *Sleeping Beauty*는 Miriam Leivers이다. 남편 Walter Morel의 male vitality에 대해 Mrs Morel이 끝내 무감각했던 것처럼 또 다른 male vitality인 Paul Morel과의 사랑을 무력하게 시들도록 만든 여자가 Miriam인 것이다. 소년 시절의 풍부한 지식욕과 감수성을 매개로 하여 Miriam과의 우정관계를 오래 끌어 가던 중 Paul은 그녀에게서 차츰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을 원하게 되나 그녀의 지나친 宗教的 潔癖症은 열정적인 그에게는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 어머니에게만 향했던 Paul의 애정욕구가 異性에게로 방향전환될 당시의,

그의 사랑의 질적 변화의 필연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얼핏 보기에는, Paul이 어머니의 청교도적 순결성에 대해서는 열렬한 존경과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걸 프렌드 Miriam의 그것에 대해서는 중국적인 절교의 구실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의 성격의 自己分裂性 또는 一貫性 缺如를 의심해 볼 수 있음직하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異性에 대한 사랑은 質的으로 크게 다를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어릴 때의 존경과 순종은 유아기적 애정관계를 특징짓는 무비판적 무자각적인 자기보호 본능의 발로인데 비하여, 이성간의 애정관계에 있어서는 유아기적인 모친예속에 대한 반발까지를 포함하여 진정한 자아실현 내지는 자기 확대의 모색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후일의 Lawrence 문학에서 형성된 본능해방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Sons*에서 엿볼 수 있는 바 경건주의적 성격의 모친에 대해 바쳐졌던 작가 자신의 무조건적인 심리적 傾倒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충분히 수긍 가는 일이라 생각되며, 어머니의 청교도주의는 母子間 結束의 끈이 되고 Miriam의 청교도적 순결성은 食傷 반응을 일으킨다는 二重의 심리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그러한 사춘기적 과거탈피 욕구의 문맥에서 가능해진다 하겠다. 더구나 그의 대개의 작품들이 작가로서의 자기발전적 표현과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Sons* 속에 나타난 바 모친에 대한 과중한 의존이라는 自己投影의 시도 자체가 그러한 불균형적 심리상태로부터의 反動的인 自己脫皮를 위하여 필요한 발달과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過去脫皮 위에서 사랑의 대상을 어머니에게서 異性에게로 전환함으로써 유아기 시절의 強者 依存的이고 自己保護的인 모친 예속 관계를 청산하고 본능 해방적인 욕망속에서 새로운 자기 세계 발견을 시도하는 Paul 소년의 노력을 다음 대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듯이,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에 불만족을 느끼면서 Miriam이 사는 Willey 농장을 찾아 가는 Paul은 막상 그녀를 만나 보고 나면, 열정적인 사춘기 소년의 용솟음치는 욕망을 경원시하는 그녀의 태도에 저항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Spring was the worst time. He was changeable, and cruel. So he decided to stay away from her [his mother]. Then came the hours when he knew Miriam was expecting him. His mother watched him growing restless. He could not go on with his work. He could do nothing. It was as if something was drawing his soul out towards Willey Farm. Then he put on his hat and went, saying nothing. And his mother knew he was gone. And as soon as he was on the way he sighed with relief. And when he was with her he was cruel again.--- He could not bear to look at Miriam. She seemed to want him, and he resisted. He resisted all the time. He wanted now to give her passion and tenderness, and he could not. He felt that she wanted the soul out of his body, and not him. (p. 193-4)

어머니의 정서적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 본능적 욕구를 발산하고자 하는 Paul이 Miriam의 정신주의적인 (Platonic) 성격과 맞부딪치면서 겪어야 하는 심리적인 갈등은 이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암말이 새끼를 배었다는 정도의 말도 입에 올릴 수 없고, 조금만 상스러운 표현 (the slightest grossness)도 그녀의 수줍은 얼굴을 떨리게 했고, 연애 감정의 도덕적인 정당성을 기도 시간에 문제삼고 따져야 하는 그녀와의 애정관계는 Paul의 욕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靈魂과 思考와 意識 등 추상적인 세계에서 끝없이 맴돌아야만 되었다. (so abstract, such a matter of the soul, all thought and weary struggle into consciousness. p. 172). Miriam을 하나의 남성 대 여성으로 만나고 싶은 Paul의 충동에 대해 그들의 교제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수치감과 부담감을 안겨 줄 따름이었다.

He did not know himself what was the matter. He was naturally so young, and their intimacy was so abstract, he did not know he wanted to crush her on to his breast to ease the ache there. He was afraid of her. The fact that he might want her as a man wants a woman had in him been suppressed in a shame. When she shrank in her convulsed, coiled torture from the thought of such a thing, he had winced to the depths of his soul. And now his 'purity' prevented even their first love-kiss. It was as if she could scarcely stand the shock of physical love, even a passionate kiss, and then he was too shrinking and sensitive to give it. --- And Paul hated her because, somehow, she spoilt his ease and naturalness. And he writhed himself with a feeling of humiliation. (p. 178-9)

Miriam은, 빨간 딸기를 머리에 꽂으면 흥겨운 분위기보다는 환상적이거나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look like some witch or priestess, and never like a reveller, p. 188), 재미있는 일에도 마음놓고 웃을 줄 모르며, Paul로 하여금 붙어나 대수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일어나게 하지만 키스하고 싶은 마음은 일으키지 못하며, Paul에 대한 애정에 있어서도 그의 재능을 아끼는 마음이나, 그의 영혼 속에서 신앙의 반력을 찾는 의무감은 있지만 Paul이라는 인간 자체를 사랑하지는 못한다. 그녀는 나중에 Paul과 性관계를 갖게 될 때에도 그녀 자신의 뿌리같은 고질인 경건주의적 성벽 때문에 육체적 욕망의 忘我的 陶醉 (impersonal swoon)에 빠질 수는 없었고, 그의 性本能에 대한 몰이해는 그에게서부터 "You make me so spiritual! ---And I don't want to be spiritual." (p. 188)과 같은 원성을 발하게 만든다.

內在의 本能의 자유로운 발현을 추구하는 Paul Morel과 초월적 숭배대상과의 자기소멸적 歸依를 추구하는 Miriam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인 갈등은 다음 대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들뜬 장미꽃에서 춤추는 나비 모습을 연상할 정도로 생명적인 약동을 갈구하는 Paul Morel에게, 화사한 장미꽃에게서조차도 경건한 신앙심을 느끼고 (bestows transcendent, religious feelings upon living things, making them into cult-objects<sup>14</sup>), 차가운 순결성의 냄새 (a cool— white,

14) G. Holderness, *D.H. Lawrence; History, Ideology, and Fiction* (Dublin: Gill and Macmillan Ltd., 1982), p. 154.

virgin scent)를 맡으려 하는 그녀와의 꽃구경 시간은 마치 감옥 속에 갇히는 듯한 구속감을 안겨 주었고, 그리하여 그녀의 옆을 벗어나서 도망치듯 내달리는 그의 심정은 차라리 해방감과도 같은 것이었다.

'They seem as if they walk like butterflies, and shake themselves,' he said. She looked at her roses. They were white, some incurved and holy, others expanded in ecstasy. The tree was dark as a shadow. She lifted her hand impulsively to the flowers; she went forward and touched them in worship.

'Let us go,' he said.

There was a cool scent of ivory roses- a white virgin scent. Something made him feel anxious and imprisoned. The two walked in silence.

'Till Sunday,' he said quietly, and left her; and she walked home slowly, feeling her soul satisfied with the holiness of the night. He stumbled down the path. And as soon as he was out of the wood, in the free open meadow, where he could breathe, he started to run as fast as he could. It was like a delicious delirium in his veins. (p. 160)

위의 서술에서 보듯이 Paul-Miriam couple이 헤어져야 했던 주요한 원인을 이들의 성격 차이에 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논고의 입장인데, 작가 자신은 성격 차이보다도 모자간의 정서적 유착 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Lawrence가 그의 출판 후견인 Edward Garnett에게 써 보낸 *Sons*의 작품 개요에 따르면, Paul이 이성관계에서 겪는 자기분열적 고통은 모친에 대한 고착증적 애속관계 (blood-tie) 때문이라고 하나,<sup>15)</sup> 적어도 Paul-Miriam couple이 벌이는 감정적 역학 관계의 근원을 실제 인물 Lawrence-Chambers couple에서 찾는다 할 때에는, Miriam 자신의 vitality 결핍을 연애 실패의 궁극적 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不感症의 精神主義者 Miriam과의 관계가, 色情的인 肉體主義者 Clara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母子間 癒着關係를 동요시킬 정도의 강력하고 加速的인 추진력을 얻지 못한 것은 Paul이 바라는 생명력의 연소를 그녀에게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다. 사실상, Paul의 원형인 Lawrence의 애정편력에서 볼 때, Jessie Chambers와의 오랜 우정이 지속되는 중에 만났던 Frieda라는 열정적인 여성과의 사이에서는 과거 탈피의 대담한 모험을 감행하고 있음은 이러한 추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H. T. Moore도 Paul의 love partner로서의 Miriam 및 Clara에게 있었던 성격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sup>16)</sup>

끝으로, Lawrence-Chambers couple 및 그 예술적 변형으로서의 Paul-Miriam couple의 상관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H. T. Moore에 의하면, 이 두 쌍의 애정관계는 서로 同質的이기만

15) H. T. Moore. op.cit., p. 93.

16) Ibid., p. 104.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sup>17)</sup> 즉, *Sons*속에서는 Paul의 간절한 求愛에 대해 무감각한 Miriam의 순결 제일주의에 대해 원망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Miriam의 모델 인물인 Chambers의 고백에 따르면, 사춘기의 Lawrence는 소유욕 강한 모친의 압도적인 영향 및 靈肉의 갈등에 의한 內的 분열과 우유부단성 때문에 그녀에 대해 뚜렷한 애정 표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들을 그의 애인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모친의 집착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정당화시켜야 할 정도로 모성에의 절대적인 영향력하에 있었던 Lawrence가 *Sons*속에서 Miriam의 성격을 그 원형보다 더욱 폐쇄적인 不感 瘡瘡로 묘사함으로써 Lawrence와 자신과의 사이에 실제로 존재했던 중대한 의미관계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것이 Chambers 자신의 주장인 것이다.<sup>18)</sup>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건대, 내성적인 소년 Lawrence의 남모르는 열정이 明示적으로 표현되지 못한 관계로 Chambers의 반응이 불만족스러웠고, 이러한 감정교류의 미흡한 결과가 *Sons*속에서 그대로 표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Sleeping Beauty Theme*에 의한 극적 사건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Lawrence-Chambers couple에 비해서 Paul-Miriam couple이 이 Theme의 전개를 한 걸음 앞으로 진척시켰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Paul은 Lawrence에 비해 본능해방적 열정이라는 下層民의 특징을 더욱 많이 띠고 있고, Miriam은 Chambers에 비해 정신주의적 경향이라는 上層民의 특징을 더욱 많이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Sleeping Beauty Theme*의 점진적 충실화는 Lawrence 소설의 대체적인 발전 경향이라 생각된다.

다음에는 장편 *Sons*에서 미완성인 채로 남겨졌던 *Sleeping Beauty Theme*이 단편 "The Shade of Spring" (1914년 완성)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실제 인물 Lawrence-Chambers couple의 갈등관계와 불행한 헤어짐이 *Sons*에서는 Paul-Miriam couple에서 나타나고 있고 여기까지는 *Sleeping Beauty*의 awakening을 촉구하는 male vitality로서의 Lawrence figure가 확실한 自己同一性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편 "The Shade"에 이르러서는 male vitality로서의 Lawrence figure는 Syson과 Pibeam이라는 두 남자 주인공이 분담하고 있고, female sterility로서의 Chambers와 Miriam은 female vitality로서의 Hilda Millership으로 변신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Chambers가 살던 Hags Farm은 *Sons*에서는 Leivers家の Willey Farm으로, "The Shade"에서는 Willey Water Farm으로 나와 있으며, Lawrence-Chambers couple 및 Paul-Miriam couple이 시골 농장을 중심으로 나누던 것 같은 어린 시절의 애뜻한 러브 스토리는 "The Shade"에서는 Syson-Hilda couple에 의해 엮여졌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단편에서는 awakening beauty figure로서의 Hilda와 지성적인 남자 Syson의 연애가 실패로 끝나고, Hilda의 욕구불만을 채워주는 남자는 야성적인 Pibeam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The Shade"는 *Sons*의 주석(footnote) 또는 속편(postscript)과 같은 성격을

17) Ibid. p. 31.

18) Jessie Chambers. *D.H. Lawrence: A Personal Record* (Cambridge Univ. Press, 1980), pp. 200-2.

지니고 있으며, Lawrence의 첫사랑 및 그 기록으로서의 *Sons*에 대한 작가 자신의 재평가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이처럼 "The Shade"에서, male vitality의 구현으로서의 남자 주인공이 대조적인 성격의 두 사람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는 것은 그것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 Lawrence 소설에서 작가의分身 역할을 하는 남자 주인공들은, "Daughters of the Vica"의 Alfred Durant이나 *Lady Chatterley's Lover*처럼 상당한 지성을 갖춘 質朴한 노동자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렇게 지성과 야성을 겸비했던 한 사람의 Lawrence figure가 "The Shade"에서는 아예 두 사람으로 분리되어 등장한 셈이고, 또한 이들 두 경쟁자 중에서 야성적인 남자가 사랑의 승리를 얻어낸다는 결말 처리는 결국 지성에 대한 야성의 우위를 보여 주려는 작가의 의도를 말해 준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단편에서 사랑의 승리자인 Pilbeam의 personal name이 Lawrence 부친의 것과 같은 Arthur라는 데에도 작가의 의중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지성에 대한 야성의 우위를 암시해 주는 것은, 10년 가까이 떠나 있던 옛날의 애인을 찾아 런던에서 돌아온 출세한 케임브리지 신사 Syson의 고향 방문 발걸음이, 옛날의 그 애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기 Pilbeam에 의해 저지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Hilda 가족이 사는 숲을 지키는 무뚝뚝한 남자 Pilbeam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도시 사람 Syson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도 당당하고 몇몇한 태도를 보이며, 숲속의 수상한 침입자 취급을 받는 Syson이 오히려 당황하고 무안당하는 입장에 있다. 아름다운 숲속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회상을 잠시 즐기던 Syson은, 그가 옛날 애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시집같은 것을 선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따져묻는 산지기에게 무어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 찢찢매는 것이다.

'Ah, isn't lovely!' Syson exclaimed; this was his past, the country he had abandoned, and it hurt him to see it so beautiful. Wood pigeons cooed overhead, and the air was full of the brightness of birds singing.

'If you were married, what do you keep writing to her for, and sending her poetry books and things?' asked the keeper. Syson stared at him, taken aback and humiliated. Then he began to smile.

'Well,' he said, 'I did not know about you-' ---

Then looking down the blue, beautiful path, Syson felt his own humiliation. 'What right have I to hang on to her?' he thought, bitterly self-contemptuous.<sup>20)</sup>

19) Moynahan, *The Deed of Life: The Novels and Tales of D.H. Lawrence* (Princeton Univ. Press, 1972), pp. 176-7.

K. Cushman, op. cit., pp. 116-147.

20) D.H. Lawrence, *Selected Short Stories*, op. cit., pp. 162-3.

\* 아래에서 이 작품에서의 인용은 이 책에 의한 것임



Hilda를 비롯하여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는 Syson은 숲속의 자연질서를 깨뜨리는 탐입자 신세를 면치 못한다. 과거에 그녀의 호감을 얻는 주요 수단이었던 과학서적과 시집들을 그녀의 집안에서 발견하고는 잠시 안도와 위로의 상념에 젖기도 하나, 지금 와서 확인하게 되는 옛날 애인의 실체는 과거에 자기가 생각했던 여자와 전혀 판판임을 깨닫고 심한 당혹감과 굴욕감을 느낀다. 옛날에는 이지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문명사회의 가치기준에 구속받기를 싫어하며, 들짐승 가죽옷을 자랑하듯이 입어 보이는 원시주의자였던 것이다. 그의 가냘픈 손가락이 중세시대 귀부인이 쓰던 골동품 가위를 잡는 데에 어울리겠다는 그녀의 가벼운 농담에서조차 자신의 나약한 지성주의에 대한 빈정거림으로 오해하고 토라질 정도로 그의 자존심과 자기 정체감은 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더구나 문명인의 안목이라는, 인생관의 더께와도 같은 색안경을 벗어 던진 Syson의 마음을 마냥 웅색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것은, 비천한 산지기의 사랑에 만족해 하는 Hilda의 자신만만하고 느긋한 태도였다. 다음에서 보듯이,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 옛날 애인을 별로 셈내지 않고 문명 이전의 자연상태에 가까운 숲속 생활을 그것 자체로서 묵묵히 용납하겠다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그가 지니고 있던 우월감은 설 자리를 잃고 마는 것이다.

He was uneasy before her. Her brief, sure speech, her distant bearing, were unfamiliar to him.— Their eyes met. He saw, in the beautiful grey and black of her glance, tears, and a strange light, and at the back of all, calm acceptance of herself, and triumph over him.

He felt himself shrinking. With an effort he kept up the ironic manner. (p. 165)

"The Shade"는, 밝은 태양 아래 싱그러운 숲속에서 벌어지는 Pilbeam과 Hilda의 뜨거운 애무 장면으로 끝나고 있는데, 덤불 가지 사이로 이 광경을 숨어 보는 Syson은 망연자실하는 공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성공적인 한 지성인으로 하여금 자기모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열렬하고 가슴 뿌듯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문명인의 가치 기준에 연연하지 않도록 만든 작가의 의도는 명백하다. 즉, 남녀간의 진실된 애정이란, 이 단편의 Hilda가 표명하는 것처럼, 개개의 인간이 제각기 다른 숭배 대상을 가질 수 있었던 옛날 시대(to have various altars to various gods in old days, p. 167)의 가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보편적인 인간 가치보다도 자기 내부의 자연 본성을 더욱 중요시하는(The man doesn't matter so much...., It is one's self that matters.)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는 작가의 신념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식물처럼 자신의 생리에 맞는 토양에서 살려 하고, 남한테서 자기의 생리 아닌 것을 강요당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선언하는 Hilda같은 사람이라야 진정한 사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애정관계에 있어서의 독립자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Lawrence적인 애정관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The Shade"는 Lawrence적인 애정 모랄을 고도의 농축성으로써 劇化시킨 秀作으로 일컬어

지는데, 비교적 난해한 부분인 다음 대목에서 작가의 애정관의 개성주의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Hilda는 그녀의 약혼자인 산지기의 통나무집을 Syson에게 구경시켜 주고 나서, 원시적인 수렵생활을 하는 산지기의 동물적이고 自足的인 감각과 문명인 Syson의 과학적인 두뇌가 별들이나 식물들의 존재양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천체나 생물들의 존재법칙을 이용하여 소기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그러한 존재세계를 그것 자체로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다는 데에 숲속 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詩조차도 창작보다는 생활속의 所有物化의 대상으로 생각되고 있고, Syson처럼 사물의 존재법칙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과의 관계를 청산해 버리는 대립적인 세계관에 찬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The stars aren't the same with him,' she said. 'You could make them flash and quiver, and the forget-me-nots come up at me like phosphorescence. You could make things wonderful. I have found it out—it is true. But I have them all for myself, now.'

He laughed, saying: 'After all, stars and forget-me-nots are only luxuries. You ought to make poetry.'

'Aye,' she assented. 'But I have them all now.'

Again he laughed bitterly at her.—

'—You plucked a thing and looked at it till you had found out all you wanted to know about it, then, you threw it away. — you always wanted change, change, like a child.'

(p. 169-170)

#### IV. "A Modern Lover"에 나타난 Sleeping Beauty Theme의 가능성

Lawrence의 첫사랑 체험을 원형으로 하여 구상되었다는 점에서 "The Shade"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의 작품이 "A Modern Lover"이다. 이 단편은 Jessie Chambers와의 좌절된 사랑에 대한 작가 자신의 심리적인 청산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한 욕구불만의 응어리를 안겨 준 그녀에 대한 내심의 원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sup>21)</sup> "The Shade"와 비슷한 모티브에서 출발하고 있고, 옛날 애인을 찾아 귀향하는 도시적인 지식 청년이 지금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21) cf. It was as if she had tipped over the fine vessel that held the wine of his desire, and had emptied him of all his vitality.

D.H. Lawrence, *The Complete Short Stories*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61), Vol. I, pp. 21-2.

\* 아래에서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에 의한 것임.

약혼중임을 알고 당혹해 한다는 점에서 작품 구조도 매우 답고 있다. 그런데 "A Modern Lover"가 "The Shaed"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애정의 三角關係속에 있는 세 주인공들의 성격적인 불명료성이다. 과거의 애인과 재결합하려고 시도하는 자의식 과잉의 도시청년 Cyril Mersham은 그의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실업자 신세라는 점에서 그 계층 성분이 모호하고 애정 상실에 대해서 느끼는 좌절감이나 자기모멸감에 있어서 작품 전편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개연성과 일관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 사랑의 경쟁관계에 있는 Tom Vickers에 대해서도 Cyril은 존경과 경멸의 태도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다음 인용에서 보더라도 앞 부분에서는 戀敵 Tom보다 자신의 위치가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뒷 부분에서는 Tom처럼 忘我的인 열렬한 애정에 빠질 수 없는 자신에게 안타까와하고 있다.

Mersham, all unconsciously, had now developed the situation to the climax he desired. He was sure that Vickers would not count seriously in Muriel's movements towards himself. So he turned away, uninterested. (p. 15)

'Why don't you like him?' he asked playfully.

'Need you ask?' she said simply.

'Yes. Because he's heaps nicer than I am.--- He is desirable--- I should choose him in preference to me-- for myself. -- I suppose it's love; which is beyond me. I shall never be blindly in love, shall I?'

'I begin to think you never will,' she answered, not very sadly. 'You won't be blindly anything.' (pp. 19-20)

또한, 思辨보다는 열정적인 生命 燃燒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그의 결심 표명(pp. 9, 16)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성격 특징은 그러한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지성과 윤리의식의 과잉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진탕 속에 잘 빠져드는 그의 무거운 발걸음 모습은 그의 질척거리는 意識 行路를 잘 形象化해 주고 있다.)

Cyril의 戀敵인 Tom에 대한 성격 묘사는 주로 Cyril 자신의 시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Tom의 素朴美 (simplicity)에 대한 선망과 그의 淺薄性에 대한 경멸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다.

He was classifying his rival among the men of handsome, healthy animalism, and good intelligence, who are children in simplicity, who can add two and two, but never xy and yx. His contours, his movements, his repose were, strictly, lovable.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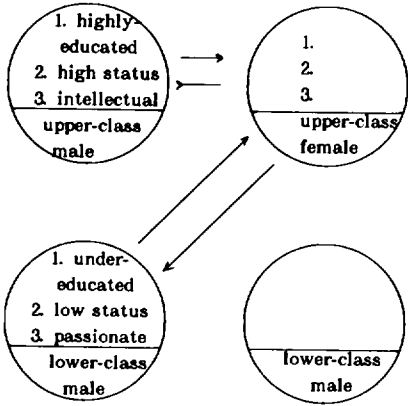
For Vickers was an old-fashioned, inarticulate lover; such as has been found the brief joy and the unending disappointment of a woman's life. (p. 17)

또한, 이 작품에서 Lawrence적인 도전적 애정 모랄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여주인공 Muriel 역시 현학적이고 감상적인 지식인 대신에 야성적인 남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도 없고, 대조적인 두 남자 모두에게 끌려 가는 듯한 애매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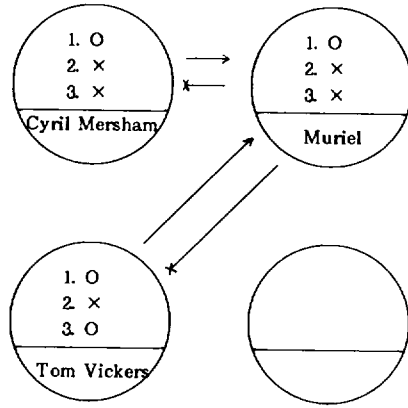
1909년 작인 "A Modern Lover"의 주인공들이 갖는 성격적 불명료성과, 1914년 작인 "The Shade"의 주인공들이 갖는 선명한 성격 특성은 이 동안에 일어났던 Lawrence 소설의 놀라운 성숙 과정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할 것이다. Lawrence 소설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하층민 남자에 의한 상층민 여자의 애정 촉발이라는 Sleeping Beauty Theme에서 찾아본다 할 때, Muriel의 약혼을 얻어내는 Tom은 마땅히 자기실현적이고 문명에 도적적인 태도로 사랑해야 할 터인데도 그의 실제 모습은 그러한 자기주장의 강렬성을 결하고 있다. 반면에 "The Shade"에 있어서는, 前作의 Cyril이 지니던 知性的 特性 (intellectual prig)과 熱情的 特性 (sensitive, alert, exquiste, p. 8)을 Syson과 Pilbeam이 나누어 갖는다는 점에서 Lawrence figure의 兩分化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Syson의 성격 특징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 및 주지주의)과 Pilbeam의 성격 특징 (낮은 교육수준과 主情主義)은 Sleeping Beauty Theme을 이루기 위한 남자 주인공들의 성격구조를 더욱 확연하게 갖추고 있다. 더구나 前作中에서 사랑의 행운을 차지한 Tom의 애매하고 非熱情的인 성격에 비해 볼 때 後作中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Pilbeam은 戀敵의 都市人的 세련미에 대해 보여주는 도전적인 태도와 약혼녀와의 열렬한 애무 행위와 결혼에 대한 열망 등 Lawrence적인 lower-class male의 훌륭한 대항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前作의 여주인공 Muriel이 지식 청년 Mersham의 求愛를 거부하는 이유는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야 한다는 ("it means something so different for a woman", p. 21) 자기방어적 수줍음 정도밖에 없는 것인데 비하여 (He recognized the woman defensive, playing the coward against her own inclination, p. 21), 後作의 여주인공 Hilda는 그녀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自然回歸主義적인 분명한 신념위에서 문명인 Syson을 포기하고 自然人 Pilbeam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upper-class female의 역할을 통한 Sleeping Beauty Theme의 완성에 한 걸음 더 앞서고 있다.

여기에서 Lawrence 소설의 Sleeping Beauty Theme을 도식화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도표 (1)에서 보듯이, 이 Theme에 의하면, 상층민 여자는 상층민 남자의 求愛를 거부하는 대신에 하층민 남자와 사랑을 주고 받고 있다. (긍정의 애정 태도를 → 로 표시하고, 부정의 애정 태도를 ← 로, 긍정 및 부정이 共存하는 애정 태도를 →X로 표시함) 그리고 계층적 성격 특징을 1. 교육수준, 2. 사회적 지위, 3. 개인적 심성 등 세 가지면에서 고찰하는데, 그 중에 상층민적 특징을 1. 높은 교육수준, 2. 높은 사회적 지위, 3. 主知主義로 규정하고, 하층민적 특징을 1. 낮은 교육수준, 2. 낮은 사회적 지위, 3. 主情主義로 규정함으로써 이 Theme의 구현 정도를 數值化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主知主義를 상층민적 특징으로 보는 것은, Lawrence적인 문명비판의 안목, 즉 문명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류계층의 사람일수록 지성적 합리적인 생활방식으로 비생산적인 자연본능과 격정을 억제함으로써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 하며 하류계층의 사람일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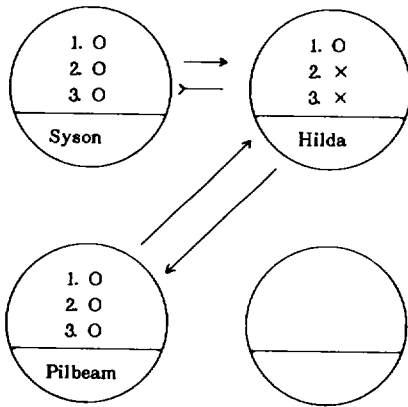
소유욕이나 지배욕에 의한 감정 억제의 경향이 약하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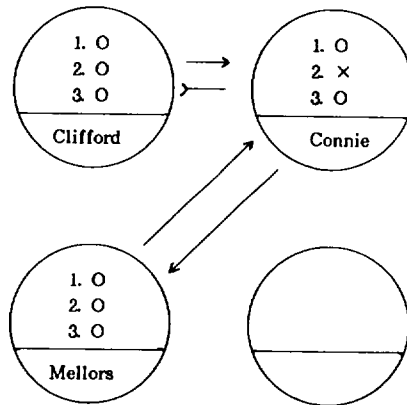
(1) Scheme of Sleeping Beauty Theme:  $\frac{13}{13}$



(2) Scheme of "A Modern Lover":  $\frac{6}{13}$



(3) Scheme of "The Shade of Spring":  $\frac{11}{13}$



(4) Scheme of *Lady Chatterley's Lover*:  $\frac{12}{13}$

"A Modern Lover"는 도표 (2)에서 보듯이 완전한 Sleeping Beauty Theme의 조건을  $\frac{6}{13}$ 만큼 충족시키고 있다. 즉, 이 Theme가 완전해지려면, 세 주인공들의 성격 특징에서 합계 아홉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단편에서는 네 가지만을 충족시키고 있고, 애정의 삼각관계에서는 완전한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만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The Shade"는 도표 (3)에서 보듯이 더욱 높은 충실도  $\frac{11}{13}$ 로써 이 Theme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세 주인공들

의 계층적 성격 특징이 보다 명료해졌고, 여주인공 Hilda의 남성에 대한 태도도 好惡間에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장편 *Lady Chatterley's Lover*는 도표 (4)에서 보듯이 가장 높은 충실도( $\frac{12}{13}$ )로써 이 Theme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여주인공 Connie가 높은 교육수준과 더불어 높은 사회적 지위라는 상층민적 특징을 하나 더 갖추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Lawrence 소설의 주제 발전은 말기로 갈수록 더욱 높은 충실도로써 Sleeping Beauty Theme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상층민 여자 Connie가 메마른 감정의 정신주의자였다가 하층민 남자에 의해 사랑의 눈이 뜨였다면 이 장편은 이 Theme의 완전한 구현을 이루게 될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Lawrence의 수 많은 장단편 소설에서 Sleeping beauty를 흔들어 깨우는 male vitality의 역할은 대체로 비천한 신분에 속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반해, 의지적이고 지성적인 주인공들의 애정생활은 한결같이 불행하게 끝나고 있다. 작품 주인공들에 대한 이 같은 성격 설정은 이 작가의 애정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 Lawrence는 현대문명의 특징을 이루는 理性·意識·科學·合理主義 등을 인간적 동물(human animal)의 애정욕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는 동시에, 直觀·感性·本能·衝動 등 무의식적인 自然本性의 자유로운 해방을 통하여 현대인의 애정생활에서 상실된 宇宙的인 一體感을 回復시켜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호의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애정관계>도 현대적 지성의 특징인 인간관계상의 소유지향성의 극복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성과 소유지향성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인간적 진실의 중요한 일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지성 평가의 이러한 한계성은, male vitality의 反知性的 성격을 전제로 하는 Sleeping Beauty Theme의 한계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교양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상류계층에 속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감정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분명히 오류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이런 의미에서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성격 창조를 모색했던 *Women in Love*는 긍정적인 지성관의 확립을 위해 큰 시사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아뭏든 지적 오만에 차있거나 소유지향적인 性的 不感症의 上層民 여자가 열정적인 下層民 남자의 性적 攻撃의 대상자 역할을 한다는 그의 소설의 특이한 경향은 Lawrence의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性愛關係에 있어서의 공격태도는 본질적으로 남자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도덕과 관습에 의한 본능 억압 경향이 비교적 약한 下層民 남자에게 性的 공격 태도의 강렬성을 부여하는 것은 실득력있는 작품 구성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Summary

## A Study of D.H.Lawrence's Sleeping Beauty Theme ( I )

Yang Young Shoe

This thesis is to find out and make sure one of the characteristic tendencies of D.H.Lawrentian fictions, which may be called 'Sleeping Bearty Theme'. This theme is evolved around the center of an upper-class heroine who is dissatisfied with an upper-class hero and attracted by a lower-class hero. Upper-class characters are assumed to be (1) under-dedicated, (2) humble in social status, and (3) passionate.

In *Sons and Lovers*, Sleeping Beauty Theme is not yet accomplished, for the highly-educated intellectual heroine, Gerturde Morel, is not attracted by her loose husband, and the puritanistic Miriam is not enthusiastic in accepting the desire of the passionate Paul Morel. In "Odor of Chrysanthemums", some kind of potential accomplishment of this theme is suggested, for the arrogant intellectual heroine, Elizabeth Bates, is brought to understand the hidden meaning of her wayward husband's identity, faced with his unexpected death. In "A Modern Lover" also, only the potentiality of this theme is envisioned, for the learned heroine, Muriel, is in hesitant position in choosing as her lover the intellectual Cyril Mersham or the humble Tom Vickers. In "The Shade of Spring", much progress is made toward the completion of this theme, for a well-read country girl is turning to the passion of her primitive lover in rejecting an intellectual prig who used to be her once sweetheart. In *Lady Chatterley's Lover*, this theme is ever more fully accomplished, for the highly-civilized lady is disgusted by the complete upper-class male, Clifford, and the natural desire of the 'sleeping beauty' is awakened by the strong vitality of the primitive gamekeeper, Mellors.

Sleeping Beauty Theme is supposed to show D.H.Lawrence's bright insight into the drawbacks of civilization in which overpowering intellectualism and possessiveness is depriving the humanity of the true happiness of blind love, but the validity of it can be doubted because it is based on the entire negation of the probability of humanized intellectualism or balanced civilization.